



스위스 고성 호텔.

역사 깃든 캐슬 스테이

하룻밤 묵어가며 중세의 기사나 공주 된 듯
고성에서 맛보는 풍성한 아침 식사
성 안의 잘 가꾸진 정원 산책
고성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미식 체험도
유스호텔로 사용되는 버젓 형 고성 숙소도 있어
이런 휴가 어때

스위스 전역에 있는 고성 중 일부는 현재 호텔이나 호텔, bnb 로 변모해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해 준다. 역사가 담백 깃든 고성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중세의 기사나 공주가 된 듯한 기분에 빠져들어볼 수 있다.

1. 호텔 샤토 귀취(Hotel Château Gütsch)****, 루체른(Luzern)

귀취 타워는 1590 년 경에 지어졌는데, 루체른 성곽의 마지막 지점으로 세워졌던 건물이다. 1888 년에 일어난 화재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화재가 있기 전부터 귀취는 숙소로 운영됐었다. 그래서 다시 숙소로 탄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화재 이후,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Neuschwanstein) 성을 모델 삼아 재건축되었다. 37 개의 우아하고 스타일리쉬한 객실과 럭셔리한 스위트룸이 마련되어 있다. 수퍼리어 4 스타 호텔답게 가든 룸과 선 테라스도 잘 갖췄다. 레스토랑 뤼미에르(Lumières)와 전설적인 아메리칸 바(American Bar)에서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테슬라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웨딩 호텔로도 인기가 좋다.

2. 솔로스 샤다우 호텔 – 레스토랑(Schloss Schadau Hotel – Restaurant)***, 툰(Thun)

19 세기에 지어진 고성 호텔로, 역사주의의 중요한 예시가 되어주고 있다. 예스러운 요소를 최대한 많이 반영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툰 호수에 바로 접해 있어 아름다운 뷰로도 유명하다. 널찍한 공원이 딸려 있어 레스토랑 이용자도 많다. 파케 플로어가 아름다운 객실과 알코올음료 및 티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는 고성의 품위를 한껏 드러낸다. 투숙객은 근교에 있는 제파크(Seepark) 호텔의 스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렌치 및 지중해 미식 메뉴를 즐길 수도 있다.

3. 솔로스 바르텍(Schloss Wartegg)***S, 로르샤허베르크(Rorschacherberg)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원한 유서 깊은 건물로 1557 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치타(Zita)가 1960 년 경 이곳에서 거주했던 곳이다. 탁 트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현재는 인상적인 과거와 미래 지향적인 컨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대적인 호텔로, 새 시대의 전통을 선사한다는 패기를 갖고, 지속가능한 자재와 천연 패브릭 사용부터 조명과 편안한 색채, 조명까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래된 농가 정원에서 가져온 희귀 식물이 심어진 가든이 아름답다.

4. 샤토 살라보(Château Salavaux), 살라보(Salavaux)

13 세기의 샤토로, 무어텐(Murten) 호수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널찍한 정원 한가운데에 요새의 탑까지 갖추고 있다. 17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향토 요리를 선보인다. 셰프 필립 부테유(Philippe Bouteille)가 로컬 재료를 사용해 시즌 메뉴를 선보인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와인 & 다인 호텔로 더 유명한 곳이다. 샤토에서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별 밤” 이벤트도 진행한다.

5. 솔로스 휘니겐(Schloss Hünigen), 휘니겐(Hünigen)



“빌라 뤼니겐(Villa Hünigen)”은 뢰텐바흐(Röthenbach) 수도원에 관련한 교황 에우제니오(Eugene) 3세의 12세기 문건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16세기에 화재를 겪은 뒤 재건축되었는데, 그 뒤로는 역사가 고이 깃들었다. 베른(Bern)과 툰(Thun) 사이에 자리해 있는 고성은 에멘탈(Emmental) 지역으로 향하는 입구에 서있다. 49개의 디자이너 객실과 11개의 세미나 룸은 현대적으로 꾸며졌고, 널찍한 주차장에는 고대 나무가 팔 벌려 환영해 준다. 호텔의 아름다운 공원에 머무르기 좋다. 로사리움(Rosarium)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미식 특선을 즐길 수 있다.

6. 쉐로스 부르크도르프(Schloss Burgdorf), 부르크도르프(Burgdorf)

스위스에서 제일 오래된 요새 구조물 중 하나로 꼽히는 고성이다. 잘 보존된 중앙 건물은 약 1200년 전 채링겐(Zähringen) 가문의 공작, 베리히톨트(Berchtold) 5세가 지은 것이다. 당시에는 혁신적인 건축 자재였던 붉은 벽돌을 사용해 더욱 눈에 띈다. 지금은 고성 안에 박물관과 유스호텔,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새롭게 단장한 박물관은 이 지역의 거칠었던 과거에 대해 잘 보여주고, 화려한 레스토랑에서는 품격 있는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유스 호텔 침실로 들어가면 중세 기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다. 더블룸, 패밀리 룸, 도미토리가 갖춰져 있다. 풍성한 조식을 기대해도 좋고, 투숙객의 경우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다.

7. 로맨틱 호텔 카스텔로 제슬로스(Romantik Hotel Castello Seeschloss), 아스코나(Ascona)

중세의 성으로, 동화 같은 낭만주의와 뛰어난 미식의 조화가 잊지 못할 휴가를 선사해 준다. 아스코나에 있는 마지오레(Maggiore) 호숫가 산책로에 호텔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지나 성으로 향하는 길이 마법 같은 분위기다. 초록의 야자수 가득한 정원과 그 속의 풀장이 쉬었다 가라고 손짓한다. 두 개의 레스토랑에서도 즐거운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ko